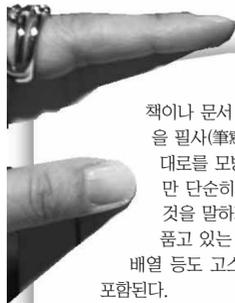


# 한자 한자...손에서 가슴으로 '힐링 필사'



책이나 문서 따위를 베껴 쓰는 것을 필사(筆寫)라고 한다. 있는 그대로를 모방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글씨만을 옮겨 적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글 자체가 품고 있는 내용과 문체, 문장의 배열 등도 고스란히 옮겨오는 것도 포함된다.

작년부터 이어져온 필사 열풍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김용택 시인의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가 상위권에 진입했다. '김성치유 라이팅북'을 표방한 이 책은 시를 읽고 책에다 손글씨로 베껴 적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마음필사', '쓰는 재미', '사랑, 시를 쓰다' 등 필사책의 종류도 점차 늘고 있다. 출판계는 지난해 '캘리그래피' (색칠공부)에서 시작된 관심이 점차 이날로그를 지향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또한 SNS 확산에 따라 짧은 문장을 토대로 한 글씨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도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필사의 가장 큰 장점은 원작의 모방을 넘어 오고지신(溫故知新)을 구현한다는 데 있다. 모방은 제2의 창조라는 말과 맥을 같이한다.

광주 진월동에서 논술과 국어 공부방을 운영하는 이은경(48) 씨는 필사에 대한 남다른 추억이 있다. 전남대 독문과와 동대학원 철학과 석사과정을 마친 이 씨는 지금도 틈틈이 필사를 한다.

"초창기에는 김승옥, 이청준, 전성태, 한강 등의 작품을 주로 필사했다"는 이 씨는 "이상문학상이나 현대문학상 수상 작품 등 당대에 이슈가 되는 문인들의 작품을 통해 글 쓰는 수련을 했다"고 회고한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문장 배열과 수사, 문법, 문체 등 글 쓰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다.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는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의 '우리말 철학사전' 3권 같은 책을 필사했다. 철학하면 어렵고 고리타분한 학문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옮겨 적기를 하다보면 생각들이 명료하게 정리된다는 것이다.

2016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자 진혜진 씨도 필사를 통해 문학 공부를 한 케이스다. 진 씨는 "좋은 시라고 여겨지는 시들을 많이 필사했다"며 "어렵잖아 한 3000편 정도 필사를 한 것 같다"고 말한다.

"김소월, 한운에서부터 현대의 이수명, 이준규에 이르기까지 읽고 베껴쓰는 훈련을 했다. 시뿐만 아니라 유명 문인들의 산문도 베껴 썼다. 미של 투르니에 '짧은 글, 긴 침묵', 김훈 '자연가 여행' 등은 문학 공부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다."

기성 문인들도 문정 시절에는 필사를 통해 문학공부를 했다. 정호승 시인은 미당 서정주와 다형 김현승 시인의 시를 필사했고 안도현 시인은 백석의 시를 필사하며 습작기를 보냈다. '흔불'의 최명희(1947~1998) 작가는 생전에 "나는 일필휘지(一筆揮之)란 걸 믿지 않는다. 문장 쓰기, 띄어쓰기, 맞춤법 같은 국어 공부는 덤이었다"고 말한다.

필사를 한권의 독서 행위를 넘어 한편의 출판 개념으로 확장하는 이도 있다. 출판사 열화당 이기웅 대표는 "고서(古書) 수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하는 요체 가운데 하나가 필사본의 '유일성(唯一性)'이다. 베끼고 이의 흔과 정성으로 이뤄진 아를



광주 진월동에서 논술과 국어 공부방을 운영하는 이은경 씨는 학생과 대학원 시절 필사를 통해 문장과 수사, 문법과 문체 등을 배울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설임에도 필사를 하는 일반인들이 적지 않다.

2002년 처음 필사를 시작 2014년 12월 1일까지 '태백산맥'을 필사했던 위승환(60) 씨는 "무엇보다 '태백산맥'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다. 문장 쓰기, 띄어쓰기, 맞춤법 같은 국어 공부는 덤이었다"고 말한다.

필사를 한권의 독서 행위를 넘어 한편의 출판 개념으로 확장하는 이도 있다. 출판사 열화당 이기웅 대표는 "고서(古書) 수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하는 요체 가운데 하나가 필사본의 '유일성(唯一性)'이다. 베끼고 이의 흔과 정성으로 이뤄진 아를

다운 책은 내용을 담아낸 앞선 이의 체온이 내 눈과 손과 심장으로 따뜻하게 전해 온다"고 강조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지역특성화예술교육·꿈다락 광주문화재단 운영단체 선정

광주문화재단이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할 57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총 10억4700만원이 지원된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기획 공모 부문은 책문화공간(주제 '신통방통 북세움'), 광주전남작가회의('문화예술작품으로 읽은 미시적 오월의 역사') 등 4개 단체가 확정됐다. 일반공모는 청소년·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여디디야('어린엄마, 삶을 요리하다'), 노인·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산수다락('산수-리의 가치를 갖추리') 등 15개 단체가 선정됐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은 청소년 대상 미술·연극·음악·건축·여행,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주제 38개 단체가 뽑혔다. 기획공모는 지역문화교육포럼재단의 '광주유성읍천을 통해 미래문화유산 남기다' 등 6개 단체가 선정됐다.

일반공모에는 오카리나 부르기, 전래놀이, 문화예술여행, 합창 배우기, 악기공방, 광주탐험 등을 주제로 한 3개 단체가 뽑혔다.

선정 단체는 오는 3월 9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 문화재단, 입주작가 모집

광주문화재단이 빛고을아트스페이스 1층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스튜디오 6개실에 입주할 5기 작가를 공모한다.

입주 작가에게는 스튜디오·사무기구, 창작 지원금, 레지던스 프로그램 관련 전시 등이 지원된다. 전기 등 공공요금도 개인 부담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 미디어아트 감사 초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미디어아트 교육·감작'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단 홈페이지(gicf.or.kr)에서 입주신청서와 창작활동계획서를 내려받아 오는 3월8~10일 경력증명서와 함께 이메일(jwvw0408@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670-7944. /김용희기자 kimyh@



## 따뜻한 그 이름 '가족' 무안 출신 김경애 시인 첫 시집 '가족사진' 펴내

추운 겨울 시린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가족이다. 그러나 더러 가장 가까운 이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도 또한 가족이다.

무안 출신 김경애 시인이 첫 시집 '가족사진'(천년의 시작)을 펴냈다. 모두 63편의 시가 수록된 시집에는 어린 시절의 가족 모습이 진솔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시인은 부모와의 관계는 물론 언니와의 관계 등을 여과 없이 그려냄으로써 한편의 가족 서사를 완성해 낸다.

표제시 '가족사진'은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봤을 사진관에서의 풍경을 담고 있다. 추석 이후 사진관에 모인 가족들의 모습은 애잔하다. 평소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덧내는 존재였지만, 명절을 맞아 사진을 찍는 가족의 모습은 어색하면서도 친근하다.

"추석날 오후, 다짜고짜 아버지는 / 가족사진을 찍으러 가자고 했다. 구멍가게를 겸하던 집, / 사진관 경계선의 벽은 꽃무늬였다."

70~80년대 유년시절을 보냈던 이들이라면 공감

할 수 있는 풍경이다. 그러므로 시인의 가족사라는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세대의 보편적 이야기로 확장된다.

해설을 쓴 이은봉 시인은 "사람살이의 억압과 상처, 고통이 심리적 언어로 진술되어 있다"며 "시 쓰기를 통해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해나가고 있는 있는 것"이라고 평한다. 한편 김 시인은 2011년 '문학의식'을 통해 등단했으며 현재 목포시문학회 사무국장장을 맡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식

광주 아리랑 호텔 5회 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 예약문의 (062)525-2111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 특허 제10-0562035호 |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 제10-1239196호 | 특허 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낡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면

홈페이지 방문해서 문의하면 시트 샘플과 카탈로그도 제공하고 여러다른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 여수대리점 (061) 683-0485 | 순천대리점 (061) 726-0482 | 광양대리점 (061) 795-0485